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호남 야구의 심장 뿜다

호남 야구의 자부심 '기아-광주 챔피언스 필드'의 역사가 시작했다. 1일 KIA 타이거즈는 NC를 새 안방인 챔피언스 필드로 불러들여 홈 개막전 경기를 펼쳤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챔피언스필드 첫 장, 2만여 관중 함께 열다

KIA, NC와 홈 개막전 매진 뜨거운 열기

선발 양현종...첫 안타는 NC 박민우



챔피언스 필드의 역사가 시작했다. 이날 챔피언스 필드에는 2만2천여명의 관중이 입장,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KIA 타이거즈가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NC 다이노스와 홈 개막전을 치렀다. 새안방에서 치르는 역사적인 첫 경기였다. 그만큼 이날 그라운드에서 뿌려진 공 하나하나가 프로야구의 역사로 남았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투수 양현종은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선 최초의 투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KIA 선발로 출격한 양현종은 NC 박민우를 상대로 직구 스트라이크 존에 꽂으면서 챔피언스 필드의 첫 장을 열었다.

첫 안타는 NC 톱타자 박민우가 쳤다. 박민우는 양현종의 직구를 받아 우중간을 갈랐다. 중견수 뒤로 빠지는 깊숙한 타구로 박민우가 3루까지 안착하면서 챔피언스 필드 첫 안타는 3루타로 남았다.

첫 삼진 기록은 NC 2번 김중호에게 돌아갔다. 김중호는 투스트라이크에서 헛스윙을 하면서 삼진으로 돌아갔다.

새안방의 첫 타석은 '슈퍼소닉' 이대형에게 돌아갔다. 올 시즌 고향으로 돌아온 이대형은 이날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출전하면서 챔피언스 필드에 선 KIA

첫 타자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대형은 1루수 앞 땅볼로 물러나면서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고향을 찾은 진흥고 출신의 NC 나성범은 첫 견제사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나성범은 4회 1사 1루에서 유격수 키를 넘기는 안타로 출루했지만 이어진 모창민의 타석 때 포수 차일목이 1루에 송구한 공보다 늦게 베이스에 도착하면서 아웃을 당했다.

KIA에서 가장 먼저 1루 베이스를 밟은 선수는 이범호다. NC 선발 이재학의 호투에 막혀 3회까지 삼자범퇴를 당했던 KIA는 4회에도 이대형과 김주찬이 1루수 플라이와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었다. 주장 이범호는 2사에서 볼넷을 끌리면서 처음 1루 베이스를 밟은 KIA 선수가 됐다.

KIA 첫 안타는 안치홍이 만들어냈다. 안치홍은 5회 2사에서 중전안타를 때리며 팀의 첫 안타를 기록했다. 5회까지 이어진 이재학의 노히트 노런 행진을 깨는 안타이기도 했다. 모든 게 기록으로 남은 2014년 4월 1일, KIA 선동열 감독과 NC 김경문 감독은 프로야구의 새 역사를 연 사람답이 됐다.

KIA 선동열 감독은 "이제야 야구장 같다. 잔디도 직접 그라운드에 써서 뿌려서 심은 것이라서 상태가 좋을 것이다. 야간간 연습경기는 한 차례밖에 하지 못했지만 선수들이 하면서 금방 적응할 것이다"며 개막전을 앞두고 활짝 웃었다.

NC 김경문 감독도 "펜스도 선수들이 허슬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잘 갖춰졌다. 우리 현장의 역할은 이제 즐겁게 야구를 해주는 것이다"고 챔피언스필드 개막전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1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NC다이노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덕아웃 특특

이대형, 어깨 약하다는 말에 "빨리 뛰어가 잡으면 되죠"

▲"빨리 뛰어가서 잡으면 되죠"

약한 어깨에 대한 이대형의 답은 명쾌했다. 1일 훈련을 지켜보던 선동열 감독이 한숨을 쉬었다. 마침 외야수들의 송구 훈련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 "발들은 빠른데 어깨가 약하다"는 게 선 감독의 고민이었다. KIA는 좌익수 김주찬, 중견수 이대형, 우익수 신종길로 외야의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 도루왕을 놓고 경쟁을 했던 김주찬과 이대형, 스피드로는 뒤지지 않는 신종길까지 리그 최강의 광속 외야가 구성됐다. 하지만 세 선수의 송구 능력

은 발 실력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감독의 어깨 고민에 대한 이대형의 해답은 "빨리 뛰어가서 잡으면 되죠"였다. 어깨 부상 전력으로 총알 송구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빠르게 뛰면서 약점을 만회하겠다는 이대형의 각오였다.

▲"좋은 투수를 이겨내야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

1일 경기는 NC에게는 개막전이었다. 9구단 체제에 따라 막내 NC는 프로야구가 개막한 지난 주말 휴식을 취했다. 시즌 첫 상대는 KIA 에이스 좌완 양현종. 좌투수와의 승부였지만 NC 김경문 감독은 박

민우를 톱타자로 해 김중호·이종욱 좌타자로 1~3번을 구성했다. 역시 좌타석에 서는 테임즈와 나성범도 5·6번에 자리했다. 김경문 감독의 설명은 "시작할 때부터 베스트로 주전선수들에게는 힘을 줄 필요가 있었다. 왼쪽이라고 다 왼쪽에서 약한 것도 아니고 왼쪽투수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에게는 어쩔 수 없는 또는 당연한 선택이기도 했다. 1일 양현종을 출격시킨 KIA는 임준섭·박경태 좌투수를 NC전 선발로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이모저모

외야 오른쪽 환하게 불 밝힌 '성화'

○...잡자던 성화대에 불이 밝혀졌다. KIA의 개막전 프로그램은 걸그룹 스피카와 가수 인순이의 공연 등의 식전 행사와 함께 양팀 선수들 소개를 시작으로 한 공식행사로 짜여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의 CI 공개에 이은 성화대 점화였다. KIA 타이거즈 이삼웅 사장의 개막 선언과 함께 전광판에는 CI가 공개됐다. 동시에 전광판 뒤로 폭죽이 터지면서 외야 오른쪽에 있는 성화대에 불이 들어왔다. 챔피언스필드 부지는 1965년 제46회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세워진 무등경기장. 1977년에도 전국체전이

열렸던 곳으로 무등경기장의 역사를 지켜온 성화대가 새구장과 함께 모처럼 불을 밝혔다.

새 그라운드는 '축제의 장'

○...새 역사가 열린 그라운드에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다.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그라운드 뮤지컬은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KIA는 이번 개막전을 위해 '포효하라 기아타이거즈'라는 뮤지컬 공연을 준비했다. 호원대학교 뮤지컬과 학생 50명으로 구성된 공연단은 호랑이가 정글에서 하이에나를 상대로 싸우면서 진정한 왕으로 태어나는 내용의 뮤지컬을 펼쳤다. 새 구장은 넓은 그라운드와 새로운 음향시스템이 어우러진 웅장한 공연으로 눈길을 끌었다.